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179-184, Jul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79

JCCT 2023-7-21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 연구

A Study on a New Definition of Societal Crisis Based upon Resilience

김신영*

Sin-Young Kim*

요 약 최근 십수년간 한국사회는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감영병 등 다양한 유형와 층위의 사회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사회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른 사회위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의 선제 조건으로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먼저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위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 한 후,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어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 정의에는 현상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이 추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위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위기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지표가 제시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위기 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또는 미시 수준의 측정 지표를 생산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위기, 재난, 위험, 사회위기 지표, 회복탄력성,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

Abstract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so-called ‘societal crisis’ in many aspects of society for a couple of decades and those crises include both natural disasters and tragic catastrophes. Given that,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first of all, what is the definition of crisis in general and societal crisis in specific. Next question is what are the major types of societal crises and what are the indicators for those crises. As a result, many areas of societal crisis and corresponding indicators in each area will be introduced. Finally, this study tries to establish a new definition of societal crises based upon a more sociological, more specifically a more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For these research purpose, in-depth review for previous research on the subject will be done including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materials. Final outcome of this study will be a new and experimental definition of societal crisis, which will provide the principle base for actual numeric indicators of societal crisis in both macro and micro level.

Key words : Soocietal Crisis, Indicators of Societal Crisis, Resilience, A New Definition of Societal Crisis

*정회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4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4,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nag Cyber Univ, Korea

Ⅰ. 서 론

이 연구는 사회위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최근 십 수년간 한국사회는 다양한 유형과 층위의 사회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사회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른 사회위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위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 한 후,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정의를 이어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정의에는 현상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이 추가될 것이며, 다음으로 사회위기의 징후를 보여주는 사회각 영역의 구체적 지표들을 한국사례를 통해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위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또는 사회수준의 위기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중·후반 구소련 연방의 해체로 인한 동서진영의 이념적 대결구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존위와 국민생명의 보장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기는 더 이상 군사 및 안보적 위험으로 제한되지 않고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회수준의 질병과 빈곤, 더 나아가 환경과 인권 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왔다.

Ⅱ. 본론

1. 위기의 개념 정의

위기의 개념정의는 국가의 종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적 이론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분과 및 정책의 유형(또는 영역)별로 사용되는 위기 및 위기 관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학문분과와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간명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애초 불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다. 이는 위기라는 개념이 포괄해야만 하는 사회·자연 현상의 다양함을 방증함과 동시에 단일한 기준으로 위기를 정의내리는 작업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위기를 살펴보면, 인간 존재 심리의 계층적 5단계에서 2단계인 '안전과 안정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할 때 느끼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위기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차원에서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들이 일정 수준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상위 차원의 인간 욕구 충족의 단계에 애초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위기는 인간 존재 심리의 기초적 단계인 것이다.

사전적으로 볼 때, 위기라는 어휘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의미로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가리킨다. [1]은 위기를 "중요한 변화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불완전한 상태이거나 혹은 하나의 사건 또는 행동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으로서의 전환점"으로 정의 내린 바 있다.

위기는 재난과 위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위기, 재난, 그리고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요약한 것이다. 각각의 어휘가 기지는 정의들의 특징들을 요약하자면, 먼저 위험은 가능성과 위해, 위기는 급박함과 전환점, 그리고 재난은 실질적인 큰 피해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은 위기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일종의 배아로, 위기는 위험이 현실화된 지각된 혼란 상황으로, 그리고 재난은 실체가 있는 부정적 결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용어의 구분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위기를 재난으로서 위기로 정의내리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2].

위험 연구의 대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홀츠만과 요르겐센은 위험을 영역과 수준(범위)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3].

표 1. 층위와 유형별 위험구분
Table 1. Classfication of Danger by Types and Levels

	미시적 (개인수준)	중범위 (--------)	거시적 (covariate)
자연재해위험 (Natural)		폭우,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 홍수, 한발, 태풍, 혜성 충돌
건강위험 (Health)	질병, 부상, 장애, 식중독	전염병, 식중독	전염병
생애위험 (Life_cycle)	출생, 고령화, 사망		
사회위험 (Social)	범죄, 가정폭력, 마약중독	테러, 조직폭력	내란, 전쟁, 폭동, 마약 중독, 아동학대
경제적위험 (Economic)	실업, 기근	실업, 기근	기업도산, 경제·외환 위기, 급격한 인플레 등
정책/정치위험 (Administrative & Political)	인종차별	인종갈등, 폭동, 화생방테러, 인위적인 건물붕괴	정치적인 사회정책 실패, 쿠데타
환경위험 (Environmental)		오염, 남벌, 토양염분증가, 산성비	지구온난화

그림 1. 포괄적 안보개념에서 바라본 국가 위기
Figure 1. National Crisis Based Upon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국내 위기연구에서는 [4]의 포괄적 위기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 개념은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반하여 국가의 위기를 1) 국민 안보 위기, 2) 영토안보위기, 3) 주권 안보 위기, 4) 핵심 기반 위기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위기는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또는 존립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국가 위기의 영역은 전통적 안보 영역, 재난 영역, 그리고 국가핵심기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사회위기 개념

앞서 살펴본 위기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는 사회위기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적 사건과 달리 사회 수준의 위기 사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의 주체가 됨으로 인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위기사건들이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위기 상태가 야기하는 집단적 외상 경험에 관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 사회위기 사건들이 야기하는 사회 전반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원인분석이나 이에 기반한 문제해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누적되게 되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심리적 및 신체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 중독,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 병리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위기 사건 또는 상황이 가지는 속성 중 하나는 간접 노출로서 사회위기상황 이해의 필요성이다. 사회위기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 경험자들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과 전파를 통해서도 위기의 심리적 충격이 광범위하게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상이 사건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정신적 영향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사회위기사건들은 그 사회에 속한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위기의 심리적 과정에만 주목하는 것은 사회위기 사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나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을 살펴 보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특별히 사회위기들이 개인에게 어떤 과정 또는 기제를 통하여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보다 관계적 또는 사회적 속성을 가진 변수들을 분석에 투입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정보와 경험이

사람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동감을 얻어가는지에 대한 계량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사회위기의 지표_한국 사례

이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사외위기 지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5]. 사회현상을 관찰하는 객관적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정 현상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을 분류한 후 해당 영역 내에서 실제 관찰과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들을 추출하여 일종의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위기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한국의 사회위기는 총 10개 영역, 44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위기를 구성하는 영역으로는 '고용', '건강·안전', '인구·가족', '경제일반', '정치 일반', '불평등', '사회갈등·문화', '복지', '주거', '교육'이며, 각 영역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영역에는 '실업률', '근로 빈곤자수',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이, '인구·가족' 영역에는 '총 부양비', '수도권 인구집중도', '고령화 지수', '출산율', '건강·안전' 영역에는 '평균 수명', '청소년노인 자살율',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강력 범죄율', '자살율', '부정식품 적발율', '교통사고 사망율', '불평등' 영역에는 , '지역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 '남녀임금 격차', '남녀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가 있다. 계속해서 '경제 일반' 영역에는 '원유가', '신용불량 지수', '환율', '개인 부채액',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외채액', '기업 부채액'이, '정치 일반' 영역에는 '투표율', '부패인식 지수', '지역별 정당득표 집중율', '사회갈등·문화' 영역에는 '노사분규 발생 건수', '파업 손실일수'가, '복지' 영역에는 '노후 대비율', '요보호 아동수', '연금 수혜비율', '장애인 출현지수'가 있다. 끝으로 '주거' 영역에는 '주거비 지출율', '전세비 증감율', '자가 보유율'이, '교육' 영역에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학생 범죄인원', '중고등학교 중퇴 비율'이 있다.

4. 사회위기의 새로운 개념: 회복탄력성의 측면에서

1) 사회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 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측면에서 사회위기의 개념정의를 새롭게 내려 보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정의 과정에 회복탄력성 측면을 추가하는 작업은 사회위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드레넌과 맥코넬[6]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위기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의 자명함(self-evident)' 시각은 사회위기란 너무도 자명하여 위기 여부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 수준 및 언론에서 취하고 있는 시각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객관적 현상(an objective phenomenon)으로서의 위기'이다. 이 시각에서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위기"용어 사용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기란 세 가지 요소, 즉 '심각한 수준의 위협',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그리고 '실행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시각은 '개인 지각(individual perception)으로서 위기'이다. 이 시각은 객관적 현상으로서 위기 개념과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며, 위기의 지각은 개인적 인식의 영역이며 따라서 동일한 현상에 대한 위기성의 지각은 상대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서 위기' 시각은 객관적 현상으로서 위기와 개인의 지각으로서 위기의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각은 객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집단적 경험과 개인이 지각하는 위기 수준의 차이를 동시에 인정하지만, 위기를 개인의 견해로 바라보는 극단적 주관성에는 반대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구성물"이란 사회학자 에밀 뒤르께임의 "사회적 사실"과 유사한 개념이며 핵심은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의 위기는 개인에 외재하며 개인의 행위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사회 위기

회복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는 'bouncing back'과 동일어로 사용되며 이전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7]. 역사적으로 회복탄력성은 물질이나 조직의 유연하거나 탄력성의 정도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였다(Dyer and McGuinness, 1996). 회복탄력성 개념은 의학이나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도 자주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범주에서 역경으로부터 개인이 회복하는 힘으로 해석하고 있다[8] [9].

학문적 차원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이 체계적으로 연

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생태학 분야에서이다. 대표적 생태학자인 [10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체제의 지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변화나 교란을 흡수하고 인구나 상태 변수 사이에 동일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후 [11은 회복탄력성을 '혼란이나 교란을 흡수하고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 능력'으로 정의내리면서 회복탄력성의 특성, 회복탄력성의 초점, 그리고 회보탄력성의 맥락의 측면에서 각각 회복탄력성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그 가운데 사회-생태 회복탄력성을 사회수준에서 가장 유용하고 적용 가능한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심리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수준의 구조 차원에도 존재한다. 사회의 회복탄력성은 사회 수준에서 변화하는 환경이 가하는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성과로 연결하는 사회수준의 역량을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사회적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수준의 회복 탄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들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노인빈곤, 저출생 문제 등에서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사회 수준에서 회복탄력성의 영역은 사회자본/경제자본/물리적 자본/인적자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영역들의 자원들은 사회위기의 대비, 대응, 복구, 완화의 각 단계와의 관련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평가된다.

회복탄력성의 속성에 대해서는 견고성, 중복성, 자원동원성, 그리고 신속성 등이 회복탄력성의 네 가지 속성으로 제시된 바 있다 [12].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견고성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는 시스템 및 요소의 강도를 의미한다. 중복성은 외부 충격 발생 시 작동을 위한 시스템 및 요소의 대체 정도를 의미한다. 자원동원성은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속성은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목표 설정을 통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 다른 회복탄력성의 속성으로는 저항력, 회복력, 창조력이 있다. 여기서 저항력은 재난과 그 결과를 견디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노력에 관한 것이고, 회복력은 재해 발생 이후 재해 발생 전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높은 회복력을 가진 커뮤니티는 더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력은 최적의 복구는 단지 초기의 균형상태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재해 경험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 위기의 새로운 개념: 회복탄력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자명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개인 지각을 거쳐 사회적 수준의 위기로 상승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위기에 대한 지각과 이로 인한 사회적 구성물로서 위기 형성 과정이 일종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개인 또는 피해 당사자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체험케 할 수 있으나, 해당 충격이 사회위기 수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의 회복탄력성의 미가동으로 인한 사회통합 수준의 장기간 저하이다.

종합해 볼 때, 사회위기란, 결국,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사회통합 수준의 저하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충격과 피해로부터 회복이라는 사회수준의 회복탄력성은 사회위기 개념 규정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사회위기는 "사회의 내·외부 위험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광범위한 물리적 피해로 인한 급격한 사회질서 및 통합 수준의 약화가 중·장기간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사회 존립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위기의 형성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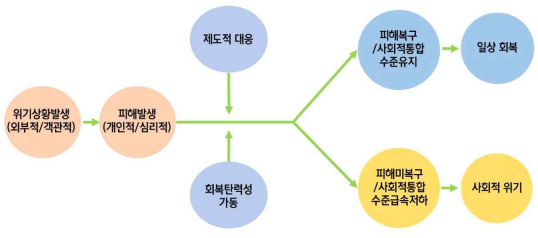

그림 2. 사회 위기 형성 경로
Figure 2. Formation of Societal Ciris

Ⅲ. 결 론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여 위기, 재난, 그리고 위험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각 개념들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정의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영역의 지표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회복탄력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 정의를 도출하였다.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의 특징은 사회위기를 정적이고 수동적인 상태, 즉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건이나 충격의 횡단면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현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의미 부여와 해석, 그리고 사회 수준에서 정상의 상태로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같은 조절적 성격을 갖는 변수를 추가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위기의 정의는 기존의 사회위기 정의에 사회위기의 구성적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한 강조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개념의 도출이라는 순수 사변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그리고 한국 사회 공동체의 안정성과 통합수준의 유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해 내는데 실천적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1] Lee Jongryol, Park Kwangkuk, Cho Kyungho, Kim Okil, “A Study on System Construction for Comprehensive State Crisis Management”, *Korean Society and Administration Study*, 15(2), 347-367, 2006.

[2] Chung Jibeom, National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Seoul: Bubmoonsa, 2009.

[3] Holzmann, Robert and Steen Jorenson., “Social Protection as Social Risk Management: Conceptual Underpinnings for the Social Protection Sector Strategy Pape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1(7) 1005-27, 1999.

[4] Jaeeun Lee., “Comprehensive Security and State Crisis Management”, Korean Social Science Council, Conference Paper, 2008.

[5] Kim SeungKwon., The Indicators of Social Crisis and Crisis Level, Health & Welfare Issue and Focus, KIHASA, 38, 2010.

[6] Drennan, L., McConnell, A., *Risk and Crisis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NY : Routledge, 2007.

[7] Kim Hyunjoo.,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Direction Settings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in Urban Are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0.

[8] Kwon Sewon, Lee Aehyun, Song Inhan., “A Study on Youth Happiness” Application of Youth Resilience Model”, Korean Youth Studies 23(2), 39-72, 2012.

[9] Kim Donghee,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Children with Atopic Diseas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10] Holling, C. S.,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1973.

[11] Folke, C., Carpenter, S. R., Walker, B., Scheffer, M., Chapin, T., & Rockstrom, J., “Resilience Thinking: Integrating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Ecology and Society*, 15(4): 20-43, 2011.

[12] Kang Sangjoon.,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for Improving Disaster Management in Ryunggi Province, Gyunggi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2011.